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제도 도입 안내

외환당국은 원/달러 현물환시장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도은행으로는 재무건전성·신용도가 양호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규모를 차지하는 은행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에서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거래실적 = [양방향 거래금액* × 양방향 거래비중**]의 일평균 값

* MIN [매수금액, 매도금액] ** 양방향 거래금액 × 2 / 총 거래금액(매수+매도)

(예) 매수 4억불, 매도 6억불 가정시 당일 양방향 거래실적 = $4 \times \frac{8}{10}$ 억불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깊이·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wash trades 등)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함께 정책자문 및 시장발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외환시장 발전 자문단)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선도은행에게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한 금액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며, 공제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60%*입니다.

* 외화예수금 관련 공제, 원/위안 관련 공제 포함 최대 60%

2022년 선도은행은 2021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22.1분기 중 선정하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공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으로 2023년 선도은행에 대하여 2022년 거래분에 대한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